

원왕생가의 시적 자아와 작자 문제

저자 (Authors)	이승남
출처 (Source)	동악어문학 39 , 2002.8, 197-216(20 pages) Journal of Dong-ak Language and Literature 39 , 2002.8, 197-216(20 pages)
발행처 (Publisher)	동악어문학회 Dong-ak Society of Language and Literature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465194
APA Style	이승남 (2002). 원왕생가의 시적 자아와 작자 문제. 동악어문학, 39, 197-216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10/22 10:53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원왕생가의 시적 자아와 작자 문제

이승남*

1. 머리말

『삼국유사』 소재 향가의 이해는 주로 서사물과의 관련에 힘입어 이루어지는 바가 크다. 그런데 感通篇의 <廣德嚴莊>條에서 <願往生歌>와 서사물의 관계는, 서사물의 말미에 가요를 소개하는 정도로 서사물이 주가 되고 노래는 부수적으로 첨가되어 있는 구성을 취하고 있다는 점¹⁾에서 그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정되기도 한다. 그런 까닭에 <원왕생가>에 대한 논의들에서는 주로 전체 서사의 큰 틀을 이루고 있는, 아미타불의 정토를 갈망하는 불교적 신앙이라는 거시적인 차원의 범주 속에서 가요와 서사물의 상호 관련성을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가요의 정서와 주제도 주로 ‘원왕생 원왕생’이라는 불교적 기원의 문면에 초점을 맞추어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되었다.

<원왕생가>의 작자 구명은 대부분 서사물의 ‘其婦乃芬皇寺之婢盖十九應身之一德嘗有歌云’이라는 문맥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는데, 대체로 보아 광덕처설²⁾ 광덕설³⁾ 원효설⁴⁾ 엄장설⁵⁾ 전승 민요설⁶⁾ 불참가라는 특수 기능의 창

* 동덕여대

- 1) 임기중, 『신라가요와 기술물의 연구』, 이우출판사, 1981, 257면과, 김열규, 『향가의 문학적 연 연구 일반』, 김열규·정연찬·이재선, 『향가의 어문학적 연구』,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1971, 29면 참조.
- 2) 양주농, 『增訂 古歌研究』, 일조각, 1990.
- 3) 김동욱, 『신라정토사상의 전개와 원왕생가』, 『한국가요의 연구』, 을유문화사, 1961.
- 4) 김사엽, 『향가의 문학적 연구』, 개명대 출판부, 1979.
- 5) 김병권, 『원왕생가의 작자 추정고』, 부산대 어문교육론집 5, 1981.
- 6) 최 철, 『신라가요연구』, 개문사, 1979.

작가요설⁷⁾ 등으로 정리된다. 이들 논의에서는 가요와 서사물의 관련성의 여부와 함께 문맥상의 끊어 읽기, ‘有歌’의 의미에 대한 해석 등의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원왕생가>의 작자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견해들 간의 차이는 궁극적으로 가요와 서사물 간의 관련 구조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가요가 서사물과 어느 정도 거리에서 어떠한 층위로 관련되는 것인가의 문제가 가장 근원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듯하다.

<광덕염장>조에서 가요와 서사물 사이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주로 작자를 광덕으로 보는 견해들에서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가요를 개인적 상상력의 관점에서 바라본 이러한 해석의 논리도, 가요의 문면이 광덕의 염원이라는 특정 화자로서의 구체적 개별성을 선명하게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한, 서사물과의 직접적인 관련을 떠나 집단적 상상력의 관점에서든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라는 점에서,⁸⁾ 가요와 서사물 사이의 이러한 관련성은 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의미가 상실된다.

그런데 <광덕염장>조의 가요와 서사물 사이에는, 전체 서사의 큰 틀을 이루는, 미타정도를 갈망하는 불교적 신앙의 서시적인 차원의 범주 속에서만 그 상호 관련성을 해석해 버릴 수 없는, 보다 구체적인 연관 고리가 존재한다. 즉, 가요에 등장하는 달이 서사물에 등장하는 달과 불교적 기원의 의미와 기능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만이 아니라, 달을 바라보는 가요에 나타난 시적 자아의 정서적 위상이 정도왕생을 위한 수행이나 그 과정과 관련되어 있고, 서사물 역시 이러한 수행의 과정과 결과에 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관련성이 시사된다.⁹⁾ 이러한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전체 서사를 천착해 보면 이 외에도 가요의 서사물 사이에는 절연될 수 없는 긴밀한 관련을 지닌 부분, 또는 서사물의 외연을 보다 확

7) 성기욱, 「원왕생가의 생성 배경」, 김학성·권두한 편, 『고전시가론』, 새문사, 1984.

8) 이와 함께 <원왕생가>의 시적 자아가 개인적 자아와 집단적 자아의 중층성을 지닌다고 보았다. 성기욱, 「원왕생가」, 화경고전문학연구회 편, 『향가문학연구』, 일지사, 1993, 347~354면 참조.

9) 가요의 달과 서사물의 달 사이의 구체적인 관련성에 대한 언급은 위약 글, 350~350면 참조.

대하여 가요와 관련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광덕엄장>조 전체의 서사를 읽을 때, 가요와 서사물 사이에 어떠한 관련의 개인성을 시사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애써 외면할 필요 없이, 오히려 거기에 친착하는 것이 더욱 온건하고 바람직한 독법일 것이다.

이 글은 <광덕엄장>조의 가요와 서사물 간의 상호 관련성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원왕생가>의 시적 자아가 지닌 정서적 위상¹⁰⁾을 탐구하여 <원왕생가> 연구의 가장 큰 쟁점인 작자 문제에 대한 하나의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¹¹⁾ 향가 가운데 뛰어난 서정성을 지닌 <원왕생가>의 작자 구명 문제는, 가요를 대상으로 1인칭 화자의 개인적이고 주관적 발화에 나타난 시적 자아의 정서적 위상에 주목할 때 비로소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한 논의를 통해 가요의 문면에서 서사물과의 보다 구체적이고 뚜렷한 관련성을 확인하게 될 때 시인으로서의 작자는 그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 먼저 가요의 문면을 통해, 달을 향해 기원하는 시적 자아의 정서적 위상을 살핀 다음 이러한 시적 자아의 정서가 집약되어 표출된 걸구 부분의 어석을 검토하여 나름대로의 해석을 시도함으로써, 가요와 서사물 간의 보다 긴밀한 관련성을 드러낼 수 있는 단서를 포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가요의 문면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요와 서사물 사이의 긴밀한 관련하에 <광덕엄장>조의 전체 서사를 관류하는 일관된 소통 구조 속에서 가요의 작자를 구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러한 논의는 결과적으로 그 동안의 <원왕생가> 연구에서 불거진 몇 가지 쟁점 사항들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나마 그 구체적인 이해의 대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10) 이 정서적 위상이란, <원왕생가>의 정서에 대하여, 종교적 차원에서 정도묘의 왕생을 염원하는 불교적 신앙의 산물로 인식하는 기존 논의의 초점을 보다 예각화하여, 하나의 작품을 통해 형상화된 더욱 구체적이고도 특정한 정서의 국면에 보다 미시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기 위한 의미로 사용한다.

11) 이 글은 광덕을 작자로 보는 기존의 견해와 같은 입장에 선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견해가 보다 확실한 근거를 지니기 위해서는 가요와 서사물 사이에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관련성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근본 취지이다.

2. 달을 향한 시적 자아의 정서적 위상

<원왕생가>는 왕생을 위한 불교적 기원을 담은 가요로서 그 정서의 바탕에 정토신앙이 짙게 배어 있다. 가요의 원문과 현대어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月下伊底亦
 西方念丁去賜里遣
 無量壽佛前乃
 惱叱古音(鄉言云報言也)多可支白遣賜立
 誓音深史隱奪衣希仰支
 兩手集刀花乎白良
 願往生願往生
 慕人有如白遣賜立
 阿邪 此身遣也置遣
 四十八大願成遣賜去

달님이시여, 이제
 서방까지 가서서
 무량수불 전에
 일러다가 사뢰소서,
 “다짐(誓) 깊으신 부처님을 우리리
 두 손을 모아 올려
 ‘원왕생 원왕생’
 그리는 사람 있다!”고 사뢰소서.
 아, 이 몸을 남겨 두고
 사십팔대원이 이루어지실까.¹²⁾

12) 임기중, 『옛노래 시로 읽기』, 이화문화사, 2002, 50면에서 인용. 여기서는 ‘사십팔대원
 을 이루실까’로 소개되어 있으나 양주농의 여석을 토대로 ‘사십팔대원이 이루어지실까’
 로 제시했다.

정도왕생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원왕생가>의 시적 자아의 염원은 궁극적으로 무량수불(아미타불)의 힘에 의지하는 것이지만, 위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전언의 경로가 ‘화자->달->무량수불’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 가요는 서방세계를 주관하는 무량수불이 아니라, 그 무량수불에게 시적 자아의 염원을 전달해 줄 서방으로 가는 달, 西昇의 매개인 달을 향해 간접적인 기원을 하는 노래이다.¹³⁾ 물론 <원왕생가>에서 달은, 원왕생이라는 불교적 기원의 의미망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¹⁴⁾ 분명한 것은 가요의 문면에 제시된 것으로 볼 때, 달과 부처는 각각 시적 자아의 기원을 전달해 줄 매개자와 서승을 주관하는 절대자라는 구별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다는 점이다.¹⁵⁾ 더욱이 제 3, 4구 ‘無量壽佛前乃 檐此古音(無量壽佛前乃 檐此古音也)多可支 白蓮賜立(무량수불전에 일러다가 사뢰소서)’ 중의 힘주인 ‘鄉言云報言也’의 ‘報言’이, 달을 향해 요청하는 아미타불에의 報告의 말씀이라는 점에서,¹⁶⁾ 또한 원왕생이라는 서원 그 자체를 읊조리는 그것이 아니라, 원왕생을 의치며 ‘그리는 사람 있다’고 사되어 달라고 하는 간접적인 전언의 요청이라는 점에서도, 달이 시니는 이 매개자로서의 의미는 더욱 분명해진다.¹⁷⁾

<원왕생가>의 이러한 달과 시적 자아와의 관계는 속요의 정음사와 비슷하다. 이 두 작품은 비록 그 구체적 기원의 내용은 달라하지만 공통적으로 달이 발화의 직접적 대상으로 존재한다. 또 정음사는 달에게 남편이 있는 먼 곳까지 그 밝음을 비취달라는 기원이고, <원왕생가>도 역시 달에게 아직은 먼 거

- 13) 향가 가운데 불교적 기원의 방식으로 노래한 또 하나의 작품으로 맹아득안가가 있다. 관음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맹아득안가는 천수관음에게 밝음을 달라는 기원을 담고 있다. 이 가요는 시적 자아의 염원을 이루어 줄 직접적인 능력을 지닌 천수관음을 화자의 직접적인 발화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원왕생가와 차이가 있다.
- 14) <원왕생가>의 달은 기존의 논의들에서 아미타불의 使者, 보살, 神佛의 광명, 佛神, 대세지보살 등으로 그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양희경, 『삼국유사 향가연구』, 태학사, 1977, 479~480면 참조.
- 15) 기존의 원왕생가 논의들에서는 달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대체로 아미타불의 화신이거나 아니면 아미타불을 향한 화자의 원왕생의 소원을 간접적으로 전해 주는 매개자로 인식하고 있다.
- 16) 김완진, 『향가해독법연구』, 서울대출판부, 1991, 114면 참조.
- 17) “<원왕생가>에서 달은 서방에 이르고자 하는 시인이, 그 간절한 염원을 호소하고 위탁하는 정도로 해석되어도 무방하다. 달이 불교와 어떤 교의적 관계를 갖는 표상인가는 문제는 오히려 부차적이다.”, 홍기삼, 『향가설화문학』, 민음사, 1997, 348~349면.

리에 있는 서방세계를 에타게 염원하고 있는 이가 있다는 것을 전해달라는 기원으로서는, 달은 공통적으로 시적 자아의 염원을 전달해 주는 매개자로서 존재한다.

<원왕생가>의 달은 남편에게 밝은 빛을 비취달라는 장읍사의 달처럼 시적 자아의 간절한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눈앞의 현실세계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 보다 세속적인 세계 속에서 진밀한 대화의 상대로 존재한다.¹⁸⁾ 따라서 시적 자아가 달을 향해 올리는 기원은 온전한 종교적 의식에서 행해지는 경건하고 엄숙한 기원이라기보다, 그러한 종교적 기원이 보다 속화된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이해될 수가 있다.¹⁹⁾ 그러므로 종교적 염원을 노래한 <원왕생가>에서 달을 향한 시적 자아의 정서적 위상을 살피는 것대는, 왕생을 기원하는 종교적 신앙의 구현으로서 가요의 기원이, 정도왕생이라는 종교적 기원의 궁극적 목표 그 자체보다는, 달과 화자의 관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보다 현실적이고 세속적 상황에서의 문제와 해결이라는 국면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마련될 수 있다.²⁰⁾

달을 향해 무량수불전에 원왕생의 염원을 전달해 달라는 이와 같은 기원에서, 아직은 정도로 가지 못해 애태우고 있는 시적 자아의 정서적 위상이 포착된다. 서방 정도와 나를 이어주는 매개자인 달을 바라보는 시적 자아의 정서는, 결구의 ‘사십팔대원이 이루어지실까(四十八人願成遣賜去)’에서 시사하는 것처럼 아직 서방정도와 가까워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리감 속에 존재한다. 이러한 거리감 속에서 나오는 ‘다짐 깊으신 부처’라는 말은 아미타불의 다짐 깊

18) <원왕생가>의 달은 불교적인 관점을 떠나서도 인간의 소망을 풀어 줄 수 있는 위력을 지닌다는 점에서 정읍사의 달과 유사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박노준, 「신라가요의 연구」, 열화당, 1985, 72~73면 참조.

19) “어디까지나 初步的 觀想이면서, 또한 眞率한 信仰心을 표시해 주는 좋은 표본……稱名念佛으로서 淨土에 왕생하겠다고 思惟하는 자체가 學識에 물들어 있는 批判的인 淨土感보다는 보다 庶民的이고 또 眞實한 宗教的 發想이라고 보아야 할 것” 김중옥, 앞의 글, 100면.

20) <원왕생가>의 시적 자아가 지닌 이러한 정서적 위상이, 서사물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상층의 신도들이 아니라 짐신을 삼아 생계를 영위하거나, 밭을 갈아 농사를 짓고, 분황사의 여종으로 되어 있는 등 보다 세속적인 하층의 인물이라는 점과도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요와 서사물 사이의 보다 긴밀한 연관관리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오신 은혜에 기대어 정도왕생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거리감으로 인하여 보다 애절한 ‘매달림’²¹⁾의 목소리로 들리게 된다.

이러한 거리감 속에서의 애절함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달을 향하여 받고 또 비는 기도가 ‘원왕생 원왕생’ 그것이 아니라 ‘그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무량수불전에 전해달라는 것에 그치는 간접적인 전언의 요청이라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이 간접적인 기원으로서는 달이라는 매개를 통한 전언은 기원의 직접적인 대상인 무량수불을 향한 것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원왕생 원왕생’이라는 애절한 반복적 되뇌임과 그러나 그러한 기도를 전해달라는 것에 그치는 간접적 전언의 요청은, 왕생의 염원이 아직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의 구체적인 반증이기도 하며,²²⁾ 이는 곧 이러한 기원이 오랜 세월동안 행해져 왔음을 의미한다.

이 간접적인 전언이 품고 있는 안타까움은 ‘이제’라는 시간을 의미하는 시어를 통해서 그 정서적 위상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이제’, ‘가서서’, ‘무량수불전에 일러다가 사뢰소서’이다. 여기에서 ‘이제’는 시간상 어느 한 시점인 지금 이 시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수행해 온 과거의 세월을 모두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제’ 전해달라는 말은 오히려 아직껏 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지금까지 수행을 해 온 세월 동안 수없이 되뇌었을 시적 자아의 기원에 안타까움과 애절함을 더해 주고 있는 것이다.

서방을 가고 있는 달을 향해, 나도 그 달을 바라보며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서원하면서 아직껏 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전해 달라는 말이다. 오랜 세월 동안의 수행과 기원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아직 서승을 이룰 수 없는 까닭은, 지금까지의 나의 수행이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라는 말은 이처럼 오랜 세월동안의 수행에도 불구하고 그 수행이 완성되지 않은 탓으로 아직 서승을 이룰 수 없다는 시적 자아의 정서적 위상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 수행의 미완에 대한 자기 반성과 고뇌는 결국 서승이라는 궁극적 목표

21) ‘다짐 깊으신 부처’는 아미타불에 대한 ‘뉘어놓기’와 ‘매달림’의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박노준, 앞의 책, 72~73면 참조.

22) 아미타불이 아닌 달을 매개로 한 청원을 아미타불과의 거리감, 그에 대한 외경심, 자신의 왜소 때문으로 풀이하기도 한다. 위의 책, 78~79면 참조.

와의 거리감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²³⁾ 그러므로 이 기도는 경건하고 엄숙한 의식 속에 들리는 고요한 목소리가 아니라 고통스러운 수행의 과정에서 터져 나오는 애절한 탄식으로 들리는 것이다. 이처럼 <원왕생가>는 달을 향해 기원하고 가원하던 오랜 세월 동안 수도 없이 되뇌었을 서승을 향한 그 수행 과정의 갈등과 고뇌를 담은 노래임을 알 수 있다.

3. 결구 어석의 검토와 그 해석

가요의 시적 자아가 지닌 수행 과정에서의 이러한 갈등과 고뇌의 성서적 위상은, 감탄사와 함께 하는 결구 부분에서 집약되어 표출된다.

阿邪 此身遺也置遺/ 四十八大願成遺賜去

아, 이 몸을 남겨 두고/ 사십팔대원이 이루어지실까.

왕생을 염원하는 종교적 기원이 의혹과 우려의 탄식으로 끝맺음하고 있다. 이는 기도문의 양식이 가요의 진술상에 배어있는 맹아득안가의 기원의 경우와는 사뭇 다르다. 이러한 탄식의 정서가 가요 전체의 의미와 성격을 내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원왕생가>가 단순히 서승을 기원하는 정토신앙의 불교적 가요라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서만 존재하고, 그러한 층위에서만 서사물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보다 더 구체적인 상황이 관련되어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탄식의 정서를 지닌 가요가 서사물의 내용과 어떠한 층위에서 서로 관련되는지 해명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요에 나타난 시적 사아의 정서적 위상이 서사물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누구냐의 것이냐를 살필 수도 있어, <원왕생가>를 두고 벌어진 논의

23) 제 2구의 '居賜里道'을 '가서서'가 아니라 김원진의 '기서리고(가실것인가)'라는 의문문으로 본 어석에 따라, 가요의 제 1, 2구의 돈호법과 선의법이 품신과 제도의 빠른 청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양희철, 앞의 책, 482~484면 참조. 시적 자아가 빠른 청원의 진술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서승이라는 광학적 목표와의 거리감 속에서 안다깝고 애절한 정서적 위상이 시사된다.

상의 가장 큰 쟁점인 작자 구명의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단서가 마련될 수 있다. 이 경구 부분에 대한 어식을 검토함으로써 이를 구체적으로 살피기로 한다.

우선 '此身遺也置遺'의 '遺也置遺'에 대해 '버려두고(버리·棄)'가 아닌 '남겨두고(길·餘)'로 읽은 어석²⁴⁾은 가요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된다. '남겨두고'는 '남긴다'는 섬에서 그 반대로 '버린다'의 의미가 중심이 되는 '버려두고'로 이해하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²⁵⁾ 그리고 '四十八人願成遣賜去'는 '사십팔대원을(목적격) 일우고(타동)살까'가 아니라 '사십팔대원이(주격) 일고(타동이 아닌 자동)살까'로 어석된다.²⁶⁾ 사십팔대원은 아미타불의 서원이다. '사십팔대원을 이루살까'로 읽을 경우, 이는 그 사십팔대원을 이루는 주체인 아미타불을 향한 나의 물음이 된다. 그러나 '사십팔대원을(목적격)'이 아닌 '사십팔대원이(주격)'로 읽고, 또 '일우고(타동)'가 아닌 '일고(자동)'로 읽는다면, '일고'가 타동이 아닌 자동이므로 '이루는 것'이 아닌 '이루어지는 것'이 되는 동시에, '살가(賜去)'의 존칭조동사 '샤'의 존재는 사십팔대원이라는 서원 자체를 높인 것으로 되며, '일고살가'는 내가 다른 이를 향한 존칭의 물음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난다.

이처럼, '사십팔대원 일고살가'의 '일고살가'는 분명히 사십팔대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십팔대원 그 자체가 성취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시적 자아는 아미타불이 사십팔대원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아미타불의 사십팔대원이 이루어지는 것, 즉 사십팔대원 그 자체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염두에 둘 것은 사십팔대원을 이루는 주체(기원의 대상)가 아닌 사십

24) “「遺」의 訓이 「投贈」의 義 「기터」 外에 外에 「버리·棄」(棄·餘)의 兩訓이 잇음…… 近古文獻의 譯例도 대부분 「길」임으로 本條도 「기터」로 읽어둔다.” 양주봉, 앞의 책, 518면. 이하 양주봉의 어석은 가요의 작자를 광덕의 처로 본 문학적 해석이지만, 어석만으로 보면 광덕의 처라는 구체적인 근거는 보이지 않는다.

25) '남겨두고'와 '버려두고'의 의미는 '둔다'의 의미에 중심을 둘 경우 비슷한 의미를 지니지만, '이 몸을 버린다'가 아닌 '이 몸을 남긴다'의 의미로 볼 경우 시적 자아의 정서적 위상은 더욱 분명해 질 수 있을 것이다.

26) “成는 訓讀 「일」……「일」은 自動이요 그 타동은 「일우」이다……「遣」, 畧音借 「고」, 「成遣」은 「일고」, 「일고」는 自動임으로 上語 「四十八人願」은 目的格 아닌 主격이다…… 本條의 「四十八人願」을 「四十八人願을 일우」의 義로 駁解키 쉬우나, 「成遣賜」는 「일우고샤」(他動) 아닌 「일고샤」(自動)이다.” 양주봉, 앞의 책, 519~520면.

팔대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갈구하는 주체인 시적 자아의 정서적 위상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이다.²⁷⁾ ‘腸去’에는 1인칭 화자가 자신을 향하는 진솔임이 강하게 드러난다. ‘르가’의 ‘르가 두렵다’ 혹은 ‘르가 정노라’²⁸⁾는 사십팔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시적 자아의 애절하고도 안타까운 탄식이다.

여기에서 시적 자아의 정서적 위상은 자신의 왕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과 관련된 것이지, 무량수불이라는 기원의 대상을 향하여 ‘무량수불의 원력을 疑慮하는’²⁹⁾ 것이 아니다. 시적 자아가 아미타불의 사십팔대원이 이루어지기를 갈구하는 까닭은, 그의 왕생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미타불의 사십팔대원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 문맥 속의 목적과 수단인 항목은 이 둘을 바꾸어 역의 논리로 도치시킬 때도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즉 사십팔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적 자아의 왕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리가 그것이다. 그러므로 사십팔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시적 자아의 왕생이 이루어지는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아미타불의 사십팔대원은 바로 시적 자아의 사십팔대원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십팔대원이 이루어지실까’는 ‘나의 왕생이 이루어질까’라는 의미를 생성하게 된다.

이상과 같이 사십팔대원이 이루어지기를 갈구하는 주체인 시적 자아의 정서적 위상에 주목할 때, 결구의 어석 ‘이 몸을 남겨 두고 사십팔대원이 이루어지실까’, 시적 자아가 ‘이 몸을 남겨 두고(버리지 못하고), 청정한 정토로 왕생할 수 있겠느냐’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이 몸을 남겨 두고(此身遺也置遺)’의 ‘이 몸(此身)’을 단순히 ‘나’라는 대명사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할 경우 이 문맥은 ‘나를 남겨두고 내가 어떻게 청정한 정토로 왕생할 수 있겠느냐’는 논리적인 모순에 빠져든다. 그러므로 ‘이 몸(此身)’은 화자를 지칭하는 대명사 ‘나’가 아니라 글자 그대로 의미인 ‘이 身體’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27) 이 부분에 대한 기존의 해석은 주로 사십팔대원이 누구의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진 듯하다.

28) “腸去는 순정조동사 「샤」……去는 訓借로서 疑問助詞 「가」에 해당한다.……「르가」에 兩義가 있으니, 一은 單純한 未來疑問形, 他是 「르가 저후, 르가 두렵」等 「疑慮」의 義를 表하는 辭인데 木條는 곧 後者. 由來 歌辭의 結句를 「르가·가」로 맺음은 한 傳統의 形式이다.” 위의 책, 520-521면.

29) 양주동, 「德」字 辨-원왕생가의 작자문제, 『국학연구논고』, 을유문화사, 1982, 134면.

4. ‘此身遺也置遺(이 몸 남겨 두고)’와 작자 문제

가요의 절구 ‘此身遺也置遺/ 四十八願成遺賜去(이 몸 남겨두고/ 사십팔대원이 이루어지실까)’는 시적 자아의 정서를 집약적으로 형상화한 부분이다. 그동안 <원왕생가> 연구의 논의들은 작자 구명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는 절구 부분의 ‘此身(이 몸)’이라는 어구에 대해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 ‘此身’에 대하여 ‘나의 몸 → 나(자기자신)’로 해석하여 화자를 가리키는 대명사적인 것으로 본 이상의 설명이 없고,³⁰⁾ 가요의 문면을 해석하는 논의들에서도 이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 몸(此身)’은 앞서 살폈듯이 ‘나’라는 대명사가 아니라, 글자 그대로 ‘이 身體’, ‘나의 신체’라는 보다 구체적인 의미로 해석된다. 이렇게 될 경우, 가요의 시적 자아가 지닌 정서도 보다 구체적이고 특징한 상황의 좌표 위에 위치할 수 있는 개연성을 지나치게 되고, 나아가 이 가요의 작자에 대한 보다 뚜렷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삼국유사』에서 서승(정토왕생)을 소재로 한 다음과 같은 또 다른 두 편의 이야기를 <광덕염장>조의 이야기와 함께 비교해 보면, ‘身體’는 이야기 전개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한다.

(가) 아간 귀진의 집에 계집종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옥면이라 하였다. 계집종은……① 밤낮 쉬지 않고 염불을 하였다.…… ② 딸의 좌우에 긴 말뚝을 세우고 노끈으로 두 손바닥을 꿰어 말뚝 위에 매어 합장하고 좌우로 흔들어 자신을 격려했다. 이 때에 하늘에서 “郁面娘은 불당에 들어가 염불하라”는 소리가 있었다. 절의 대중들이 이를 듣고 계집종에게 불당에 들 것을 권하여 예에 따

30) 양주동의 어석에서 ‘此身’의 용례는 ‘身’에 대한 것에 그치고 있다. 이 용례들에서도 ‘身’은 역시 ‘몸’이라는 신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다른 용례로서 『보현십원가』의 「수회공덕가」 중 ‘몸衣身’의 경우를 들고 있기는 하나 이 역시 ‘身’은 ‘몸’과 함께 함으로써 ‘나의 몸’인 ‘나’를 의미하는 것이다. 양주동, 『增訂 古歌研究』, 인조각, 1990, 517~518면 참조. 『보개회향가』에도 ‘몸衣身’이 보인다. 다른 가요들에서 ‘나’를 의미하는 것으로는 「현화가」, 「제망매가」, 「맹아득안가」, 「처용가」, 『보현십원가』의 「수회공덕가」, 「칭전법륜가」, 「싱수불학가」, 「형순중생가」, 「충결무진가」 등에 모두 ‘몸’라는 낱자로 표기되어 있다. 상수불학가에서 ‘我佛體’의 ‘我’는 ‘우리’로 해석되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볼 때, ‘此身’은 구태여 ‘나’로 읽을 이유가 없으며, 축사적인 해석이 더욱 바람직해 보인다. 이 때, 시시어인 ‘此(이)’는 ‘身’을 강조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라 성신하게 했다. 얼마 안되어 ③ 하늘의 음악소리가 서쪽으로부터 들려오고 계집종은 집 대들보를 뚫고 솟아나와 ④ 서쪽 교외에 이르러 유해(兪骸)를 버리고 무처의 몸으로 변하여 나타났다. 그는 ⑤ 연화대에 앉아 큰 광명을 내뿜으면서 천천히 떠나갔는데 음악소리가 하늘에서 그치지 않았다. 승전에 보면,…… 이러한기 9년만에 을미 정월 21일 예불을 하다가 집의 대들보를 뚫고 올라갔다. 소백산에 이르러 신 한짝이 떨어졌으므로 그 자리에 보리사를 지었고, ⑥ 산 밑에 이르러서 그 몸(其身)이 버러졌으므로 그 자리에 두 번째 보리사를 짓고 그 전각에 옥면등천지전(郁面登天之殿)이라고 써 붙였다. (『三國遺事』, 感通篇, <郁面婢念佛西昇>條)

(나) ⑦ 다섯명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비구가 와서 머물면서 아미타불을 염불했다. 서방성토를 구한지 몇 십년 만에 출연 聖衆이 서쪽으로부터 와서 맞이하였는데, 이에 ⑧ 다섯 비구는 각기 연화대에 앉아 허공을 타고 갔다. 통도사 문밖에 이르러 머물렀는데 하늘에서 하늘의 풍악이 간간히 울렸다. 절의 승려들이 나가 살피니 다섯 비구는 무상고공(無常苦空)의 이치를 설하고 ⑨ 유해(遺骸)를 벗어 던지고 큰 광명을 뿜으면서 서쪽을 향하여 갔다. ⑩ 그 유해를 버린 곳에 절의 승려들이 징자를 짓고 이름을 치루(置樓)라고 했는데 지금도 남아 있다. (『三國遺事』, 避隱篇, <布川山五比丘景德王代>條)

위에 소개한 서사물들의 내용을 <광덕엄장>조의 서사와 함께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옥면비 염불서승	③ 하늘의 음악소리가 서쪽으로부터 들려오고 ⑤ 연화대에 앉아 큰 광명을 내뿜으면서 천천히 떠나갔는데 음악소리가 하늘에서 그치지 않았다.
(나) 포천산오비구 경덕왕대	⑧ 다섯 비구는 각기 연화대에 앉아 허공을 타고 갔다. 통도 사 문 밖에 이르러 머물렀는데 하늘에서 하늘의 풍악이 간간 히 울렸다.
(다) 광덕엄장	· 엄장이 문을 밀치고 나가서 돌아보니 구름 밖에서 하늘의 음악소리가 들리고 광명이 땅에 드리웠다.

<표 1 : 서승의 순간>

<p>(가) 육면비 염불서승</p>	<p>④ 서쪽 교외에 이르러 유해(虺)를 버리고 무처의 몸으로 변하여 나타났다. ⑤ 산 밑에 이르러서 그 몸(身)이 버려졌으므로 그 자리에 두 번째 보리사를 짓고 그 전각에 육면등천지전(郁面登天之殿)이라고 써 붙였다.</p>
<p>(나) 포천산오비구 경덕왕대</p>	<p>⑨ 유해(遺骸)를 벗어던지고 큰 광명을 뿜으면서 서쪽을 향하여 갔다. ⑩ 그 (유해를) 버린 곳에 절의 승려들이 성자를 짓고 이름을 치루(置樓)라고 했는데 지금도 남아 있다.</p>
<p>(다) 광덕엄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장은) 이에 광덕의 아내와 함께 유해(骸)를 수습하여 장사를 지냈다.(同鸞蒿里) · 가요 : 이 몸 남겨 두고 사십팔대원이 이루어지실까

<표2 : 서승의 자취>

<p>(가) 육면비 염불서승</p>	<p>① 밤낮 쉬지 않고 염불을 하였다. ② 뜰의 좌우에 긴 말뚝을 세우고 노끈으로 두 손바닥을 꿰어 말뚝 위에 매어 합장하고 좌우로 흔들며 자신을 격려했다.</p>
<p>(나) 포천산오비구 경덕왕대</p>	<p>⑦ 다섯명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비구가 와서 머물면서 아미타불을 염불했다. 서방정토를 구한지 몇 십년 만에……</p>
<p>(다) 광덕엄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덕은) 매일밤 몸을 단정히 하고 바로 앉아서 한결이 아미타불의 이름을 염불했다. · 남편(광덕)은 나와 함께 신지 십여년에 아직 하루밤도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는데, 허물며 몸(身)을 더럽혔겠는가. · 관이 무르익으면 밝은 빛이 집으로 들어와 때로는 그 빛을 타고 올라 가부좌를 하였다.

<표 3 : 서승을 위한 수행 과정과 정성>

위와 같은 비교를 통해 <광덕엄장>조, <육면비염불서승>조, 그리고 <포천산오비구경덕왕대>조의 이야기들이 서승의 순간, 그 자취, 그리고 서승을 위한 수행의 과정과 정성이라는 세 가지 내용들을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으며, 서승을 위한 아미타불의 염불 수행의 과정과 결과로 이어지는 하나의 줄거리

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¹⁾ 여기에서 '身體'는 이러한 줄거리 가운데 들어 있는 하나의 중요한 모티프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위의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육면비염불서승>조의 ④와 ⑥, 그리고 <포천산오비구경덕왕대>조의 ⑨과 ⑩에서는 신체를 버린다는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 ④의 '骸'는 같은 서사물에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승전의 다른 기록을 소개하는 이야기인 ⑥에서 '身'으로 표현되고 있어, 이는 몸, 곧 身體를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수행을 끝내고 서승하는 순간 몸, 신체는 버려지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더욱이 이 신체가 버려지는 것에 대해서 ⑥에서 제2 보리사를 지어 '육면등천지전'이라 하고 ⑩에서 정자의 이름을 지루(置樓)한 것으로 그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이러한 신체를 버린다는 내용은 <광덕엄장>조의 서사물에서 '(엄장은) 이에 광덕의 아내와 함께 유해(骸)를 수습하여 장사를 지냈다.'라는 문맥과 상응한다. 광덕이 서승을 이루고 난 후 버려진 그의 유해를 엄장과 아내가 수습해서 장사지냈던 것이다. 또한 이 신체를 버린다는 내용은 <원왕생가>에서 '이 몸을 남겨 두고(버리지 못하고) 사십팔대원이 이루어지실까'와 상응한다. 앞서 여식 검토에서 살폈듯이 '이 몸'은 '나'가 아닌 글자 그대로의 '이 신체'를 의미한다. 이 신체를 버리는 순간 사십팔대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왕생할 수 있는 것인데, 나는 아직 신체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이 '신체'는 <광덕엄장>조의 개요와 서사물을 잇는 보다 긴밀한 연관고리로서 존재하게 되고, 개요의 '이 몸 남겨 두고(此身遺也置遺)'에서 '신체(身)'는 서사물의 등장 인물인 광덕의 몸을 가리키는 것임이 더욱 분명해진다.

그리고 이 신체를 버린다는 의미는 <육면비염불서승>조의 ②에서 '뜰의 좌우에 긴 말뚝을 세우고 노끈으로 두 손바닥을 꿰어 말뚝 위에 매어 함장하고 좌우로 흔들어 자신을 격려'한 것처럼, 왕생을 위한 수행의 과정이 자신에게 스스로 가하는 신체적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찾아진다. <육면비염불서승>조에는 일연의 讚詩를 통하여 이 신체를 버리는 의미가 재차 강조되고 있다.

31) <광덕엄장조>의 실질적인 주제를 정도왕생을 위한 '정성어려운 信仰生活과 修道의 피나는 과정'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박노준, 앞의 책, 56면.

서편 이웃 옛절에는 佛燈이 밝은데	西隣古寺佛燈明
방아 짚고 돌아가면 밤도 이경이라	春罷歸來夜二更
스스로 한마디 염불미다 부처 되기 기약하고	自許一聲成一佛
손바닥을 노끈으로 꿰어 제 몸 바로 맞혔도다.	掌穿繩子直忘形

原詩의 마지막 행에서 ‘忘形’으로 표현된, ‘몸, 신체를 잊는(버리는) 것’은 <표 3>의 ②를 형상화한 것으로, ‘成-佛’ 하기 위해 스스로 신체에 가하는 고통의 과정을 수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몸을 버리는’, 신체에 가하는 고통의 의미는 <광덕엄장>조의 서사물에서는 엄장과 광덕의 처 사이에 벌어진 실갱이를 통해 암시되고 있다.

엄장은 광덕의 유태를 장사지낸 후 광덕 처에게 함께 살자고 제의하여 ‘欲通’하러 했다가 거절당한다. 엄장은 아내를 데리고 살지 않아 그 동안의 수행의 과정이 육체적 욕망에서 보다 자유스러웠을 것임도 불구하고, 광덕의 처라는 존재로 제시된 육체적 욕망의 대상 앞에 부름을 끊고 말았다.³²⁾ <광덕엄장>조에서 이 ‘身體’는 더욱 구체적으로 서승을 위한 수행 과정에서 끊어 없애야만 하는 ‘육체’ 혹은 ‘육체적 욕망’으로 제시된 셈이다.³³⁾ 이러한 육체적 욕망의 문제가 광덕과 관련해서는 제시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표 3> <광덕엄장>조에서 ‘남편은 나와 함께 산지 십여 년에 아직 하루밤도

32) 서사물의 서두에서 광덕은 처를 데리고 살았지만, 엄장은 그렇지 않았고, 또 사귀기 좋은(友善) 두 사람은 서로 먼저 서승하는 자는 시로 일리자고 약속한 사이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처를 데리고 산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서승을 위한 수행의 환경과 과정을 대조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광덕의 처는 여기에서 육체적 욕망의 대상임이 시사되고 있다. <광덕엄장>조의 전체 서사는 먼저 수행의 환경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곧 광덕은 수행의 환경이 열악하고 엄장은 양호하리라는 점을 제시하지만, 그러나 서사의 전개과정을 통하여 이를 반전시킴으로써, 그러한 일반적인 인식을 무너뜨리고 있다.

33) 이를 근거로 가요의 ‘이 몸’을 엄장의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서사물에서 광덕이 유태를 남기고 서승했다는 문맥과 ‘德備有歌云’이라는 문맥을 통해 가요와 서사물과의 연관 고리를 찾을 수 있는 이상 그 이상의 추론은 불필요하다고 본다. 또 가요의 문면에 드러난 시적 자아의 정서적 위상에서 서승을 위한 이러한 기원이 오랜 세월 동안 행해져 왔음을 시사받을 수도 있기에 때문에, 십여 년 동안 그의 처와 한 번도 동침하지 않았다는 서사물의 내용과 관련하여 광덕에게로 이어지는 것이 더욱 자연스러운 귀결일 것이다.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는데, 하물며 몸(身)을 너럽혔겠는가'라는 광덕 처의 말에서 분명히 시사된다. 육체적 욕망을 끊는 수행의 고통은, 광덕에게도 징토로의 왕생을 갈구하는 수행자로서 지켜야 할 자신 스스로가 내건 계율이자 종교적 기원의 담보였을 것이다. 광덕이 십여 년 동안의 수행의 과정에서 매일 밤 잠자리에 누운 아내를 곁에 두고 외면하면서도 완전히 떨쳐 버리지 못했던 육체적 욕망을 끊는 고통은, 위의 일연의 찬사에서 옥면이 '스스로 한마디 엽불마다 부처되기를 기약하고, 손바닥을 노끈으로 꿰어 제 몸을 바로 잊었'던, 육체를 버리는 고통과 같은 것이었다.

이렇게 볼 때, <원왕생가>의 '이 몸(此身)'의 '身', '신체'는 서승을 위한 수행의 과정에서 길림들이 되고 있는 '육체적 욕망'을 의미하며, 이로써 가요의 시적 자아가 달을 향해 기원한 원왕생의 염원은 보다 뚜렷한 정서적 좌표상에 위치하게 된다. <원왕생가>의 결구 '아, 이 몸을 넘겨 두고 사십팔대원이 이루어지실까'는 육체적 욕망을 버리지 못한 채 갈등하고 고뇌하는 수행자의 고통을 드러내는 탄식이다. 광덕은 십여 년 동안이나 수행을 해 오면서도, 관음보살이 아내라는 이름으로 현신한 한 여인-육체적 욕망의 대상과 완전히 결별하지 못한 탓에 아직껏 서승하지 못하고, 서방세계의 무량수불을 향한 '원왕생 원왕생'의 애타는 염원을 달을 보고 대신 전해달라고 한 것이다. <광덕엄장>조는 육체적 욕망의 문제를 시사물뿐만이 아니라 가요를 통해서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³⁴⁾

이처럼 <광덕엄장>조의 가요와 서사물은 서로 긴밀한 연관 고리를 지닌 가운데, 서승을 위한 육체적 욕망의 극복이라는 전체 서사를 관류하는 총체적 의미망을 형성하고 있으며, <원왕생가>는 이 육체적 욕망을 남겨두고서는 서승을 이룰 수 없다는 불교적 수행에 대한 가르침을 광덕의 노래를 통하여 제시하고 있다.

34) <광덕엄장>조의 서사물을 통해 육체적 욕망의 문제를 언급한 견해들은 있으나, 대개 서사물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토대로 엄장과 관련된 것으로 보았고, 광덕과 관련된 것으로 본 경우도 가요의 문면을 통해 이러한 점을 확인하지는 않았다. 광덕과 관련된 것으로 본 견해로는 김동욱, 앞의 글, 96~99면 참조.

5. 맺음말

이 글의 목적은 <원왕생가>의 시적 자아가 지닌 정서적 위상을 탐구하여, 이 가요를 대상으로 한 논의 가운데 가장 큰 쟁점인 작자 분제에 대한 하나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려는 것이었다.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한다.

(1) <원왕생가>에 등장하는 날을 향한 시적 자아의 정서적 위상은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보다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상황에서의 분제와 그 해결이라는 국면에 놓여있으며, 오랜 세월 동안의 수행 과정에서 아직 극락왕생 하지 못하고 있는 시적 자아의 갈등과 고뇌의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

(2) 앞서 살핀 시적 자아의 정서적 위상과 관련하여 <원왕생가> 결구의 어식을 검토하였다. 결구의 '이 몸(此身)'에 대하여, 단순히 화자를 가리키는 '나'라는 대명사적인 의미로 해석한 기존의 견해들과는 달리 글자 그대로 '이 신체'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새롭게 해석하였다. 이렇게 해석할 경우 시적 자아가 지닌 정서적 좌표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한편, 지금까지의 논의들에서 구체화되지 못했던 서사물과 가요 사이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각된다.

(3) <원왕생가>의 결구에 위치한 '이 몸 남겨 두고(此身遺也置遺)'의 의미를 서사물과 관련하여 작자 문제를 구명하였다. 이를 위해 『三國遺事』에 수록된 이야기들 중 정토왕생의 소재를 지닌 <육면비염불서승>조, <포천산오비구경덕왕대>조의 내용을 정리하여 <광덕엄장>조의 서사물과 비교하였다. 이 세 편의 서사물에서 공통적으로 '몸(身體)'은 왕생의 순간에 버려지는 것이었고, 이 신체를 버리는 것은 <육면비염불서승>조의 이야기를 통해 수행과정에서 육체에 가해지는 고통, 육체를 버리는 고통의 의미를 지닌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원왕생가>의 결구 '이 몸을 남겨 두고 사십팔대원이 이루어지실까'는 '육체적인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나의 정토왕생이 이루어질까'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로써 가요의 '이 몸(此身)'은 광덕의 몸을 가리키는 것으로, 가요의 작자는 광덕이 된다. 이처럼 <광덕엄장>조의 가요와 서사물은 서로 긴밀한 연관 고리를 지닌 채, 서승을 위한 육체적 욕망의 극복이라는 전체 서사를 관류하는 총체적 의미망을 형성하고 있으며, <원왕생가>는 이 육체적 욕망을 남겨두고서는 이승을 이룰 수 없다는 불교적 가르침을 광덕의 노래를 통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논지를 따라 <원왕생가> 연구의 부분적인 쟁점 가운데 아래의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한다.

첫째, 가요의 창작과 가창의 시점에 관한 것이다. 가요의 시적 자아를 광덕으로 볼 수 있다면, 가요 창작과 가창의 시점은 서사물에서 광덕이 ‘每夜’에 ‘一聲念阿彌陀佛號’ 하였다는 시점과 연관된다. 그러나 이 ‘每夜’는 시간상의 어느 한 시점이 아니라, ‘德嘗有歌云’의 ‘嘗’이 지니는 시간적 융통성처럼 왕생을 위한 수행 과정의 오랜 세월을 포괄하는 것으로, 앞서 살핀 바 있는 가요의 ‘이제’라는 포괄적 시간의 의미와 상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德嘗有歌云’은 독자적인 해석으로 ‘광덕에게 일찍이 노래가 있었다’로 읽는 편이 더욱 정확한 해석이 될 수 있다. ‘作歌’가 아닌 ‘有歌’라고 해서 가요가 광덕 이전부터 오랜 기간 동안 전승되어 온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것은 광덕이 창작했다는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광덕이 십여 년 동안의 수행 과정에서 오랫동안 노래를 불러 왔다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렇다면 ‘有歌’의 의미는 광덕이 지어시 오랜 기간 부른 노래가 후대의 전승 과정에서 ‘광덕의’ 노래라는 인식으로 지리잡은 것을 말해 주는 것이고, 이것이 ‘일찍이 광덕의 노래가, 광덕이 오랫동안 불러왔던 노래가 있었다’로 이해되어 ‘德嘗有歌云’으로 기록될 수 있었다고 본다.

둘째, 광덕의 처에 관한 것이다. 서사물에서 광덕의 처는 분황사의 여종으로 관음보살의 19 應身 가운데 하나로 제시되어 있는 탓에 주로 광덕과 엄장의 수행을 도와 서승을 이루게 한 보살의 역할에 주목하여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전체 서사의 핵심이 정도왕생을 위한 수행 과정에서의 육체적 욕망 극복의 서사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광덕의 처는 보살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왕생에 걸림돌이 되는 육체적 욕망의 대상으로서 그 역할과 의미가 부각되어야만 될 것이다. 광덕의 처가 관음보살의 19응신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은 서사물의 마지막 단계에서 그 정체를 밝히면서 언급되는 것이다. 서사의 전개 과정에서 광덕의 처는 엄장에게, 관음보살이 수행자의 육체적 욕망을 시험하여 그것을 초월하도록 돕기 위한 존재로 변신하여 나타난 것으로 이해된다. 그녀는 수행자에게 있어서 금기시 되는 과거의 원인, 곧 육체적 욕망의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이러한 점은 엄장 이전에 그녀와 십여 년을 함께 살았던 광덕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사엽, 『향가의 문학적 연구』, 계명대 출판부, 1979.
- 김완진, 『향가해독법연구』, 서울대출판부, 1991.
- 박노준, 『신라가요의 연구』, 열화당, 1985.
- 양주동, 『增訂 고가연구』, 일조각, 1990.
- 양희철, 『삼국유사 향가연구』, 태학사, 1977.
- 윤영옥, 『신라시가의 연구』, 형설출판사, 1992.
- 임기중, 『신라가요와 기술물의 연구』, 이우출판사, 1981.
- , 『옛노래 시로 읽기』, 이회문화사, 2002.
- 최 철, 『신라가요연구』, 개문사, 1979.
- 홍기삼, 『향가설화문학』, 민음사, 1997.
- 김갑기, 『원왕생가』, 임기중 외, 『새로읽는 향가문학』, 아세아문화사, 1998.
- 김동욱, 『신라정토사상의 전개와 원왕생가』, 『한국가요의 연구』, 을유문화사, 1961.
- 김명희, 『원왕생가의 원형 이미지』, 한국문학연구 8,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1985.
- 김병권, 『원왕생가의 작자 추정고』, 부산대 어문교육론집 5, 1981.
- 김열규, 『향가의 문학적 연구 일반』, 김열규·정연찬·이재선, 『향가의 어문학적 연구』,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1971.
- 박기석, 『원왕생가와 광덕 엄장 설화의 관련 양상』, 『한국고전시가작품론』, 집문당, 1992.
- 성기옥, 『원왕생가의 생성 배경』, 성기옥·김학성 편, 『고전시가론』, 새문사, 1984.
- , 『원왕생가』, 화경고전문학연구회 편, 『향가문학연구』, 일지사, 1993.
- 양주동, 『德字辨-원왕생가의 작자문제』, 『국학연구론고』, 을유문화사, 1962.
- 이영태, 『16관법의 특성을 통한 광덕엄장조의 시론적 연구』, 『국어국문학』 129호, 국어국문학회, 2001. 12.
- 이재선, 『향가의 기본성격』, 김승찬 편, 『향가문학론』, 새문사, 1986.
- 황패강, 『원왕생가 연구』, 『삼국유사의 문예적 연구』, 새문사, 1982.

Abstract

The Poetic Ego and the Matter of the Author in <Wonwangsaeangga>

Lee, Seung Na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a counterpart about the matter of the author of <Wonwangsaeangga(願往生歌)> which arouse a lot of interests, investigating the poetic speaker's emotional phase. The lower part is an abstract of this treatise.

1. The emotional phase of the poetic speaker toward a "moon" in <Wonwangsaeangga> is placed in the conjuncture which is concerned with an problem and an solution in more realistic and earthly situation, And it also reflects troubles and anguish that are caused by the situation that the poetic speaker can't achieve an easy and peaceful death in ascetic practices for it.

2. "This body(此身)" is interpreted not as "I" that indicates a simple poetic speaker, but as literally meaning, "this flesh" through an examination of the glossary in the ninth and tenth line of <Wonwangsaeangga>.

3. The matter of the author is able to explored through connecting the meaning of "leaving this flesh" in the ninth line of <Wonwangsaeangga> to the epic context. In Samkukyusa(三國遺事) there are two stories that contain material for an peaceful death into eternity as <Kwangduk Eumjang(廣德嚴莊)> story. It is found in common that "body" is throwing away in the two stories. And the one of the two stories has agony which is inflicted on the body and is caused by throwing away his body. So, "leaving this flesh, is it possible to achieve an peaceful passage into eternity?" in <Wonwangsaeangga> is understood that it's doubted that he can get an peaceful passage into eternity without giving up the pleasures of the flesh. Therefore "this flesh(此身)" indicates Kwangduk's body and the author is Kwangduk. It is found that "德嘗有歌" means that there was a song which Kwangduk have sung long time ago.